

〈제 539호〉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임직원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임직원들은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금호타이어

### ◆ 타이어교체 대행 서비스 시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의 타이어전문 특화유통점인 '타이어프로'가 지난 16일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고객을 찾아가는 '교체대행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교체대행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기사가 방문해 차량을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주는 서비스로,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 무진기연

### ◆ 은탑산업훈장 수훈 영예



무진기연(대표이사 조성은)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인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이사는 에너지플랜트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원가절감, 품질 보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88종 이상의 특허 및 인증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하게 됐다.

## 보해양조

### ◆ 임직원 5·18묘지 참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보해양조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참배 후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에게 매실음료를 나눠주고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보해양조는 작년 11월에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조선대학교에 '기억의 계단'을 만들기도 했다.



## 해양에너지

### ◆ CI·비전 선포식 개최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창립 37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와 'CI'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해양에너지 CI·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지자체, 국회의원, 유관기관, 학계, 재계, 언론 등 각계 대표와 회사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



에너지를 축하했다.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는 '환경시대의 청정에너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높여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힘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CI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의 슬로건 아래 무한한 가치 실현과 지속 성장, 자연과 인류의 긴밀한 공존을 표현하고자 뱀비우스 띠를 형상화했다.

## II. 광주경중 소식

### 〈제1442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17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최혁 남도일보 주필을 초청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광주의 역사>란 주제로 제144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미국에 근무하면서 1900년대 초 목키산맥 일대에서 생활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미국 곳곳에서 농장 일꾼으로, 탄광 광부로, 철도노동자로 일하던 조상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루 일당 1달러50센트 내외에서 매일 50센트 정도를 떼어내 이를 모아 조국에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 조선인 광부 중 일부는 휴가를 내 군사훈련을 받고 갔다. 이유는 한 가지. 일본군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은 그런 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선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대하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의 역사와 선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정리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전남도관찰사 윤웅렬의 두려움 때문에 전남관찰도가 나주라는 큰 고장을 나누고 광주에 들어서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소 허망한 생각을 갖게 한다. 윤웅렬은 구한말 광주지역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정착과 사업 확장을 적극 도운 인물이며 그는 일제의 조선식민지 지배를 위해 힘을 쏟았다. 사실 윤웅렬은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와 종교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광복절은 나라를 되찾은 기쁜 날인 동시에 과거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제 강점 36년을 통해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히 목격했다. 광복절의 교훈은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어 나라를 잘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 사무국 일지 (5.13 ~ 5.17)

5.13 (월)	● 청년일경험드림 멘토특강	5.16 (목)	● 중장년센터 사례관리자 회의 참석
5.14 (화)	● 중장년 제3회 재도약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 북구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캠페인 참석 ● 노사민정협의회 신규 교육 참석	5.17 (금)	● 제1442회 금요조찬포럼 - 최혁 남도일보 주필 초청
5.15 (수)	● 산업안전 수행기관 선정 심사		

## 1. 노사 동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 29 4차 「본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을 추진했으나 무산

○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반대하는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으로 2차(3. 7)와 3차 (3. 11) 「본위원회」가 무산됨에 따라, 위원 참석을 요하지 않는 서면의결 추진

- 그러나 4차 「본위원회」도 근로자위원 3명과 공익위원 2명이 서면제출을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종료

※ 의결거부 근로자위원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의결거부 공익위원 :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 [ 참고 1 ] 4차 본위원회(4. 29) 상정 안건(심의 불발)

구분	주요 내용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위원회 설치	▲(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설치(안)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
경사노위 운영 및 연금특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논의시한 연장(안)

○ 경사노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

- 문성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쳐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한국노총은 4. 30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 불참한 근로자위원들과 경사 노위 사무국의 미숙한 회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경사노위의 재구성, 의결구조와 운영 등 재설계, 경사 노위 사무국의 쇄신 방안을 제안

####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법안 심의 지연

○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노동법안 심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4. 29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4. 30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5. 7) 동안 노동 관련 법안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표명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임위 개최 등 의사일정 조율이 어려울것으로 전망

※ 자유한국당은 5. 2 소속 의원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한 가운데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

#### ■ 양 노총은 근로자의 날(5. 1)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 해결 촉구

○ 한국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을 슬로건으로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제 개편반대, ▲경사노위 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강조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민주노총은 서울시청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제 개편·탄력근로제 확대 폐기,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2019 노동절대회」 개최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조하며, 對정부 투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

#### [ 참고 2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조직해 노동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임.
- ▲100만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시킬 것임.
-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해 나갈 것임.
- ▲재벌중심의 산업정책을 개혁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임.

○ 서울시는 4. 30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통해 특수형태종사자,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등을 발표

- 서울시는 4. 11에도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서울지역 퀵서비스 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 서울시는 '18. 11. 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 [ 참고 3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노조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형태종사자, 비정규직 노조 설립 지원</li> <li>-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지원</li> </ul>
근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자종합복지센터' 2021년까지 25곳 설립</li> <li>▲서울 시내 '노동자쉼터' 5곳으로 증설</li> <li>▲무료 노무 컨설팅 '마을노무사' 150명으로 확대</li> <li>▲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li> </ul>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작업중지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7월까지)</li> <li>▲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li> <li>▲'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조사관' 도입</li> </ul>